

“목포시 ‘먹깨비’ 활성화 위한 예산 확대해야”

지역 사회단체, 시민 동참도 호소

“소상공인·골목상권 살리는 해법”

목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를 위한 시민 동참과 목포시의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목포시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목포시지부, (사)전국배달라이더협회목포무안지부, 진보당목포시지역위원회는 지난 11일 목포평화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배달앱 시장을 장악한 민간 기업들이 연간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두고 그 수익 대부분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목포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의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법으로 우리 지역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를 위한 시민 동참과 목포시의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먹깨비’는 수수료 15%,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가맹비·광고비 없는 구조를 갖췄지만,



목포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1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목포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활용도가 낮고 실질적인 정책적 뒷받침도 부족하다”며 “강진군은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외식업소 90% 이상이 ‘먹깨비’를 활용하도록 유도한 결과, 전남 매

출 1위를 달성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목포시의 이벤트성 홍보가 아닌 실질적인 활성화와 예산 확대·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먹깨비’는 단순한 배달앱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과 시민경제의 자립을 위한 공공경제의 시작이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목포시의 행정적 지원 및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최지명 목포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낮은 수수료(1.65%), 광고비 부담 없음, 지역화폐 사용 가능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강성오 한국외식업중앙회목포시지부장은 “목포지역에서만 연간 약 33억원이 민간 배달앱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먹깨비’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 되면 연간 약 161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며 시민 동참을 호소했다.

최경선 전국배달라이더협회목포무안지부장은 “‘먹깨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 이용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정석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장은 “시민들의 관심과 이용이 골목상권에 시원한 바람이 될 것이며, 진보당은 소상공인의 생계와 시민의 돈을 지키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광군, 80MW급 ESS 구축…RE100 산단 유치 박차

도내 전체 물량 중 15.3% 확보

계통포화 해소·전력 안정화 기대

영광군이 80MW(저장용량 480MWh) 규모의 ESS 구축 사업에 최종 확정되면서 RE100(기업 전력 100% 재생에너지 사용) 산업단지 유치가 박차를 가한다.

12일 영광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주관한 2025년 제1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에서 80MW 규모의 ESS 구축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ESS는 한전 변전소에 연결해 전력거래소 요청 시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발생한 잉여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공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 급증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 영광군의 계통 부담이 완화되고, 전력 안정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차 ESS 입찰에서는 전국 563 규모 중 전남이 7개소에서 523MW를 차지했으며, 영광군은 전남 전체 물량의 약 15.3%를 확보했다.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은 RE100 산업단지 유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조건으로, 영광군은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친환경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과 연계해 탑술라·전남개발공사 컨소시엄과 업무협약을 체결, 에너지공유와 기금 조성 및 군민 이익공유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환경 구조와 지역 수용성을 강화하고, 공공주도형 발전사업 기반과 지속 가능한

군 재정 확보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 전남도 및 민간사업자와 협력해 오는 10월 예정된 2차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비롯한 향후 정부 ESS 입찰에서도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도약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ESS 입찰 물량 확보는 계통포화 해소, 전력 안정화, RE100 산업단지 유치, 그리고 군민과 혜택을 나누는 에너지 기반 마련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민관이 힘을 모아 영광군의 미래 에너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탑술라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2026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영광=김동규 기자

함평군, 사업비 33억 투입 월야초-빛그린산단 4차선 확장

국토부 공모 선정 국비 25억 확보

함평군이 월야초등학교와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대규모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선다.

12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5억원을 확보했다.

군은 이와 함께 총 33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계획도〉

해당 도로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와 월야면 구도심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도로 확장 시 산단 접근성 개선과 물류 효율성 향상은 물론, 근로자 및 기업 관계자 유입 촉진, 지역 상권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도로 확장 사업은



빛그린산단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 월야면 도시재생 활성화 등 군이 추진 중인 핵심 전략사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빛그린국가산업단지는 함평군 월야면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원에 걸쳐 약 12만평

규모로 조성 중이며, 1단계 광주 구간은 준공을 완료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등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이 이미 입주해 있다.

2단계 함평 구역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금호타이어 등 대형 기업 입주가 예정돼 있어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함평=김연수 기자

완도 출신 독립운동가 임재갑의

‘오석균의 편지’ 道 문화유산 지정

완도군 신지면 출신 독립운동가 임재갑이 간도 민족운동 지원 활동 중 받은 ‘오석균의 편지’(사진)가 전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12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전남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 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활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항일 독립 유산 문화유산 지정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8일 문화유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편지를 포함한 8건이 지정됐으며, 광역 지자체 차원의 지정은 전국 최초다.

‘오석균의 편지’는 경성 연건동에서 간도 용정촌에 체류 중이던 임재갑에게 보낸 문서로, 1920년대 간도 지역의 민족운동 지원 실체를 보



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4장 분량의 편지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눈 안부와 공동체 의식, 독립에 대한 절박함이 담겨 있으며 원형이 잘 보존돼 역사적 가치가 높다. 현재 신지면 항일운동기념자료관에 전시돼 있다.

임재갑(1891~1960)은 완도군 신지면 출신으로, 1920년대 초 송내호를 중심으로 결성된 항일 비밀결사 ‘수의위친계(守義爲親契)’의 비밀 회원

으로 참여했고, 간도 민족운동을 직접 지원했다. 귀향 후에는 청년 운동과 교육 사업에 힘쓰며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했다.

오석균(1889~1973)은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출신의 항일 독립운동가로 주로 경성에서 활동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완도가 간도 지역 항일운동과 밀접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영암 ‘구림한옥스테이’ 복합 플랫폼 부상

최대 40명 수용…연수·워크숍 최적 평가

영암군 ‘구림한옥스테이’(사진)가 단순한 숙박을 넘어 전통문화 체험과 업무가 결합된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12일 (재)영암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구림한옥스테이는 조용한 전통 한옥 공간에서 깊이 있는 회의와 교류가 가능해 ‘회의 맛집’이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점목록’ 우선순위에 오르고 있다.

최대 40명까지 수용 가능한 회의실과 숙박동, 넓은 야외 마당을 갖춘 팀워크가 중요한 연수·워크숍·전략회의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한옥 특유의 따뜻한 공간감과 호남 명촌으로 불리는 구림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어우러져 참가자들의 몰입도와 만족도가 높다. 실제 이용객들 사이에서는 “아이디어가 술술



나오는 공간”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입소문에 힘입어 부산문화재단, 전남 문화재단, 강릉 울곡연구원은 구림한옥스테이를 문화예술인 위케이션 장소로 활용해 창작·회의·휴식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최근에는 루마니아 펍투어팀이 방문해 전통 주 빚기, 한복 체험 등 한국 고유의 맛과 멋을 즐기며 구림한옥스테이의 매력을 직접 확인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강진군, ‘가스타이머록’ 모든 군민 지원

취약층 전액 보조·일반가구 20% 자부담

강진군이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타이머록 보급사업’을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에서 일반 가구까지 전면 확대한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6월 강진군 가스타이머록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 군민의 보편적 안전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독거노인 등에 한정됐던 보급 대상이 일반 가구까지 확대된다.

가스타이머록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 밸브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이다. 강진군은 수년 전부터 고령자와 독거노인, 장애인에 대상으로 시범 설치를 통해 화재 예방 효과를 확인해 왔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2025년부터 본격적인 보급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8월 한

달간 사업 대상가구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신청 대상은 급속배관이 설치된 가스사용 가구 및 시설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신청서를 접수한다.

단 고부호스 배관 사용 가구는 제외되며, 지원은 1세대당 1회로 제한된다.

지원 방식은 취약계층 가구는 전액 보조, 일반 가구는 설치비의 80%를 보조해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군은 8월 말까지 접수된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순차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경숙 강진군의원은 “가스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가스타이머록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모든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해남공룡박물관·명량해상케이블카 함께 즐겨요”

1인 최대 2천원 할인 4인까지 가능

해남 대표 관광지인 해남공룡박물관과 명량해상케이블카간의 공동 할인 패키지 협약이 연장 운영된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공룡박물관을 먼저 방문한 후 케이블카를 이용할 경우 1인당 2천원, 반대로 케이블카 이용 후 박물관 방문 시에는 1인당 1천500원이 할인된다. 할인 혜택은 동반 4인까지 적용 가능하다.

해남공룡박물관과 명량해상케이블카 간 협약은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매년 약 1

천300명의 관람객 증가와 체류 시간 연장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공룡박물관은 세계 최대 공룡 발자국과 알로사우루스 진품 화석 등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 콘텐츠를 전시하고 있으며, 명량해상케이블카는 울돌목 회오리바다와 다도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해상케이블카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관광객이 공룡박물관을 통해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경험한 후, 명량해상케이블카의 환상적 경관까지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